

디지털 시대의 정전 위상과 의미

장 창 영(전북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디지털 정전 개념의 해체
3. 가치 역전과 의미 충돌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정전(正典, canon)¹⁾은 시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연계시키는 매개물이자 상징적인 존재이다. 또한 정전은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기보다는 공동 창작과 집단에 의해 보수·유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정전은 첫째, 뛰어나고 우수하며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작품, 둘째 시대를 초월하고 영원하며 기념비적이고 지속적인 작품, 셋째, 전형적이고 모범적이며 고전적인 작품, 넷째, 반드시 전승될 가치가 있고, 누

* 이 논문은 2008년 국어문학회 하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고친 것이다. 당시 토론에 참여해주신 고은미 선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1) 정전(canon)은 측정의 도구로 사용된 '갈대'나 '장대'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의 'kanon'에서 유래한 말로, 이후 'kanon'은 '규칙' 혹은 '법'이라는 제 2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J. Guillory, 박찬부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303면).

구에게나 알려진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읽히는 작품을 말한다.²⁾ 이를 입증 하듯 정전은 텍스트로서의 영속성과 가치성, 사회 환원성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대중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구술시대의 정전이 유동적인 형태로 존재하면서 창작과 전파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기록문학의 경우에는 문자 확정형태로 창작과 전파가 진행되었다. 특히 문학에서의 정전의 문제는 원전 확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문학사에서 특이한 존재로 알려져 있는 이상(李箱)의 경우, 임종국에 의해 『이상 전집』이 나온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작품집과 전집이 출간되었다.³⁾ 이후 여러 형태의 판본이 나오면서 임종국의 『이상 전집』은 정본으로서의 절대성과 신뢰성이 약화되게 되었다. 또한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진위여부가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자시대를 대표하는 ‘정전’이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절대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그 가치를 평가받는 과정을(필수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외에도 한국현대사에서 원전 논란이 문제 제기되었던 작가로는 김소월, 서정주, 백석 등이 있다. 이들의 작품은 인쇄나 출간을 통해 자료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작품을 원전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을 빚어 왔다. 그 이유는 이들의 작품이 발표를 거친 고정형태의 기록문학이지만 발표 이후 메모나 습작 형태의 다른 작품이 발견되거나 작가가 지속적으로 수정을 거치면서 인쇄본만을 정본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⁴⁾

2) 라영균, 「정전과 문학교육」, 『독어교육』 제 26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3, 138면.

3) 『이상 전집』은 이상의 생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 1966년 임종국에 의해 3권으로 처음 출간되었으며, 이후 이승훈(1989), 김윤식(1991) 등에 의해 전집형태로 출간되었다.

4) 작가의 작품집을 내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와 달리 출판사의 편집진이 개입되어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박경리가 1969-1994년에 걸쳐 창작한 『토지』의 경우,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내고 있는데, 편집자에 의해 작품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정본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유찬은 “문화일보에서 5부를 연재, 지난 1994년 완간된 ‘토지’는 그간 여러 출판사를 전전하면서 판본이 바뀌는 과정에서 원전에서 탈락 또는 누락된 부분이 많이 생겼을 뿐 아니라 출판사 편집자들이 임의로 작품에 손을 대는 바람에 소재목이 상당수 바뀌었고 세부내용에서도 많은 부분이 첨가, 삭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최유찬, 「토지의 다매체 수용과 문화지형학」; <토지>판본 비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Vol.21, 현대문학연구학회,

창작과 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개입으로 구술이나 기록 문학은 작가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원전 확정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처럼 원전 미확정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작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의 특성상 하나의 시어나 행간, 그리고 부호에 의해서도 전체 흐름이나 전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 원전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상 텍스트 자체가 연구의 기본토대를 훼손할 만큼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시집의 경우, 작가에 따라 이본과 정본 및 개작본이 다수 존재하며 시집에 수록된 작품의 경우에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작가가 의도했던 바와 달리 거꾸로 된 활자, 한자어 오용, 띄어쓰기 잘못 등과 같은 인쇄 과정상의 오류는 작가의 창작 의도 내지 작품의 오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연구자가 저본이라 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 다른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텍스트의 오류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이승훈의 『이상 문학전집』⁶⁾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편저자가 발표 지면에는 정상으로 되어 있는 사자성어를 작가의 독창적인 사유 방식의 결과로 인식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텍스트는 결과적으로 작가의 창작의도를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 자체를 오역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전은 연구자의 연구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원전은 연구자들에게 작품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형태의 작품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작가의식의 실체에 접근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원전 확정 작업은 작가의 저본을 확정하는 의미이자 다른 연구의 초석을

2003 참조)

5) 전정규의 경우, 김소월의 육필 원고를 발표지면과 비교하여 정본 확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소월 김정식 전집』(1993, 한국문화사)과 『김정식 작품 연구』(2007, 소명출판)라는 저서를 낸 바 있다.

6) 이승훈, 『이상 문학 전집 1 - 시』, 문학사상사, 1989.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원전 내지 정전의 개념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원전에 기반을 둔 정전의 개념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구술이나 기록문학 시대와 달리 정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비중도 과거에 비해 미약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정전의 중요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변종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전의 개념이 애매하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자체가 난해성을 띠게 된다.⁷⁾

기존의 구술이나 기록문학에서 정전의 가치를 시간이 지나더라도 퇴색하거나 약화되지 않는 영속성에서 찾았다면 오늘날 정전의 가치는 생성과 변화,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생명력과 다양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과 달리 정전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변형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의미를 창출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확산과 더불어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문자텍스트를 중심으로 정전의 위상과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시대에는 구술이나 문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아날로그 시대의 구술이나 기록문학 시대의 정전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정전이 등장하고 그 정전의 변종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원전과 복제본의 경계가 해체되는 시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 디지털 정전 개념의 해체

디지털은 우리 문화의 흐름과 삶의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변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 발달로 인하여 원전과 차이가 없는 복제품 양산 시대, 즉 무한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⁸⁾ 네티즌들에

7) 이 글에서 지칭하는 원전이 문자에 기반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정전은 원전을 포함한 좀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개인의 사상과 시대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를 총칭한다.

8) “복사품은 진품의 질낮은 흔적에 불과하다. 여기서 복사품은 오히려 진품의 위대성을 반증하는 데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벤야민 시대의 복제기술은 차이의 미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것은 순전히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었다. 디지털 이전의 복제품은 약간의 품질

개 텍스트는 기존의 원전이나 정전 개념이 아닌 개별 정보 형태로 인식될 뿐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정보의 재조합이나 합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전 의미의 약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창작에 따른 저작 개념 또한 약화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상의 텍스트는 고정 불변이 아닌 유동적인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를 접하는 이들에게 창작동기 유발과 함께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디지털의 확산과 더불어 텍스트 전파과정에서 쌍방향 소통과 함께 일반 네티즌들이 창작자 내지 공동 창작자로 등장하는 현상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⁹⁾ 그 결과 인터넷상에서는 기록문학에서 발생하기 힘든 작가나 출처 확인 불가 상태의 작품들이 종종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원전과 변형된 형태의 작품이 동시에 인터넷상에 전파되면서 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주목해야할 현상이다. 기존의 처용설화가 김춘수의 <처용단장>으로 작품화되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디지털 시대에는 가공이나 익명의 인물들에 의해 창작물 양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¹⁰⁾

손상을 내포한, 진품의 근사치를 흉내낸 차원에 그쳤다.”(신성환, 「디지털 복제시대의 새로운 예술미학」, 『한국언어문화』 제 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203-204면)

9) 작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문화관광부 문학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언어의 새벽>같이 공동참여 방식의 의도성이 강한 창작 작업이 향후에 진행될 수도 있다. 팬포엠(<http://www.FanPoem.co.kr>)이 여기에 해당한다.

10) “휴대전화로 쓰고 읽는 일명 ‘엄지소설’이 일본 서점가를 점령했다. 휴대전화로 소설을 쓸 때 엄지손가락으로 번호판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엄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난해 일본 베스트셀러 1~3위가 휴대전화 소설이며 상위 10위 열 권 중 다섯 권을 휴대전화 소설이 차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엄지소설은 작가가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듯 글을 쓰면 독자들은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를 읽는다. 짧은 문장들로 쓴 사랑 얘기가 대부분인 엄지소설은 책으로도 출판됐지만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엄지소설이 출판계를 주도하게 되자 일본 정통문예지 <문학계> 1월호에서는 “휴대전화 소설은 작가를 죽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 소설 특징을 마련했다. 엄지소설의 인기는 휴대전화의 저렴한 문자요금제에서 출발했다. 일본 최대 통신사 도코모(Docomo)가 한 달에 일정 요금만 내면 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자 젊은 세대들은 글이나 이메일 대신 휴대전화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엄지소설 ‘이프 유(If you)’로 지난해 베스트셀러 5위에 오른 작가 린(여·21)도 시간이 날 때마다 휴대전화로 글을 썼다. 이 글이 인기를 끌면서 142페이지의 소설로 출간돼 지난해 40만 부가 팔렸다. 엄지소설 작가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소설이 첫 작품이며 독자들 역시 기존 문학은 어렵다고 기피해온 세대다. 엄지소설 팬들은 만화를 즐겨보는 새로운 세대가 문학장르를 만들었다고 반기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기존 문학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엄지소설이 출판계를 휩쓸 경우 일본 문학의 몰락이 빨라질 것이라고 걱정했다.”(변회원, 「‘엄지소설’의 반란」, 조선일보, 2008. 1. 23)

또 다른 특징은 구술이나 기록문학과 달리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시청각 형태의 작품을 양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원전을 패러디하는 차원을 넘어서 네티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거나 원전과 완전히 변형된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은 구술이나 기록문학과 달리 UCC를 비롯한 사진, 음향, 동영상의 접맥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계층의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반응 유발이 가능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 시대의 기술 발달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작가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복사하고 변형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창작개념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창작작업은 고정이지 않는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가들은 완성형태의 작품을 제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가능함으로써 자신의 창작의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사는 글쓰는 이들은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재 차용과 전달방식의 변화 외에 실시간 업그레이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창작방식이나 창작형태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정전의 고유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작가, 희소성, 작품의 완성도, 예술성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어느 작가가 창작했는지, 그 작가의 어느 시기에 창작했는지, 작품의 희소성이나 작품 수준 등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만약 작가가 남긴 작품이 여러 종류가 있다면 이와 같은 요소들은 작가의 원전이나 정전 확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작품은 치열한 작가정신과 작가혼이 깃든 산출물이라는 점에서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는다. 기록문학의 경우, 작가의 성장 배경을 포함하여 직접 쓴 육필원고나 창작 배경 등이 연구의 대상이나 문화관광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¹¹⁾ 이와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것은 이들이 위대한 문학작품을 배태한 작가의식과 창작의 모티브를 추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1) 일본의 경우, 비소를 기념하는 문학비가 전국에 4,000여 개에 이르며,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머물렀던 여관마저도 관광상품화되어 있다.

하지만 복제본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높은 인지도와 절대 권위를 인정받는 원전과 달리 복제본은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심한 경우 위작 논란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¹²⁾ 경우에 따라서는 복제본이나 위작을 남긴 작가들이 복구불능의 치명적인 훼손을 입는 경우도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고호의 작품을 변형시킨 작품들만을 모아 놓은 ‘복제미술관’처럼 유명한 경우도 있다.¹³⁾ 하지만 이와 같은 미술관은 원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시켜주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호의 아우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미술관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학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문학의 경우, 그동안 창작은 작가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었다. 창작이야말로 작가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공간이자 다른 이들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세계로 인식되어 왔다. 작가들은 이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 자신들의 열정과 혼,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하여 치열하게 작품 창작에 임했던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글을 접근하는 작가나 독자 쌍방의 의식 변화와 대응하는 방식에서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경계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독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자들은 작가와 지속적인 교통신도를 시도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어느 경우에는 작가 스스로가 일반 대중의 참여 유도 및 대중화에 직접적으로 나서기도 한다.¹⁴⁾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직접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작 산출물을 발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창작과 전파, 그리고 수용으로 이어져오던 일련의 문학 전개 방식의 중대한 변혁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창작과정에서 집단 참여가

12)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섭의 작품을 둘러싼 위작 논란이다. 이중섭의 유족까지 개입하여 조직적인 형태의 위작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방송 보도와 함께 지금도 정확한 실태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13) KBS 수요기획 <고호, 돈을 만나다>, 2004. 4. 21 내용 참조.

14) 대표적인 예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우수 인터넷 문학사이트 지원 사업과 우수 작품 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까지 참여에 가세함으로써 창작의 기본 범주가 넓어졌으며 창작품 또한 다양한 형태로 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 목적의 다양성과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⁵⁾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독자 참여의 장을 확장시킴으로써 또 다른 문화 창출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¹⁶⁾

독자들의 참여폭이 점차 확대되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가 가상과 현실, 그리고 주체와 객체가 혼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세계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문학 역시 아날로그와 다른 방식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과 현실을 넘나든다. 따라서 인터넷과 문학작품이 상호 연계할 경우, 그 상승작용은 더욱 가공할 위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규혁의 <퇴마록>, 귀여니의 <그놈은 멋있었다>에서 나타나듯이, 네티즌들은 경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직접 창작자로 변신하여 작품을 접하는 이들을 독자층으로 수용하면서 작품 산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인터넷상을 배회하면서 정보들을 습득한다. 이 정보들의 유통기간은 한시적이며 끊임없는 제공되는 새로운 정보들에 의해 추월당한다. 그 형태 또한 자본시장의 논리에 충실하기 위해 네티즌들의 시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대중성과 상업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확정 형태의 정전이 등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상에서 정보 활용 여부를 책임지는 주체는 네티즌 본인 자신이며, 매일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추세 속에서 어떤 정보들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또한 당연히 네티즌의 몫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구술이나 기록문학에서와 같이 정전으로가

15) 문학의 위기가 거론되던 90년대 이후 신인 등용문을 표방하는 신문사나 잡지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고하는 전체 작품수 또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수치 증가는 외면적인 면에서 투고 작품의 양적 팽창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와 함께 질적 심화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6)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다모' 폐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들어 TV를 포함한 방송매체에서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와 독자들의 참여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사 역시 이를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 개념이 확장될 여지가 적다는 것이 인터넷 정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이다. 문제는 인터넷과 각종 대중매체가 양산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결과적으로 구술이나 기록문학에서 제한된 정보를 접촉해야 했던 시대의 미덕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터넷과 각종 대중매체의 범람은 독자들의 관심 분산과 함께 집중력의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형태에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작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감각적인 형태의 독서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실시간으로 넘쳐나는 정보를 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이나 정전의 개념과 그 가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물론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우리들의 감각 변화와 사회·문화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디지털의 확산이라는 미명 하에 작품의 질적 저하와 함께 실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창작계층과 수요계층의 와해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가상 세계의 현실화를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CG와 같은 기술력을 통해 상상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TV나 컴퓨터 게임산업에서 사용되는 스토리텔링의 경우에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들 작품 역시 시청자들의 시청률과 판매량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업성과 대중성에 몰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 주체로서의 판단력 마비나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의 팽배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은 대상에 대한 몰입성과 중독성이 강하다. 흥미와 재미를 전략의 기반요소로 삼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을 유발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효과와 조회수와 같은 외부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창작주체와 수용주체 사이에 이루어지던 상호관계는 해체되고 일방적인 주입식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복의 악순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대상은 네티즌이다.¹⁷⁾

17) 현재 법원의 저작권(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에 대한 판결은

네티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터넷의 ‘핼’은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할 때보다 다른 자료들과 함께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데 유효한 인터넷 방식 중의 하나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핼’을 통한 내용 전파가 그 어떤 대중매체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막강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글을 쓰는 이가 의도하지 않았던 형태의 정보 왜곡과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핼’이 인터넷상에서 지식 공유의 특성을 소화시키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핼’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원전이나 정전과 달리 창작 작품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다. 즉 ‘핼’에서는 원전이나 정전이 유발했던 문화 확산 기능과 다른 이들에게 실행을 촉발하던 동기 부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의 ‘핼’ 행위는 네티즌들의 유희 대상인 동시에 문화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네티즌들은 ‘핼’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이들과의 상호 소통과 문화 전파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가치는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을 이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핼’의 활성화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는 정보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상의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의 상호교섭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터넷 외의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정전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공유의식은 정보의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3. 가치 역전과 의미 충돌

인터넷상의 정보나 텍스트들은 언제든지 의미와 가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정격성을 강조하는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상에서는 인터넷의 특성이나 대중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가 등장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다른 이들이 쓴 글이나 내용을 편집을 통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

인터넷에 공개자료를 올려 놓은 것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배포,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흔히 상업적인 목적의 복제나 배포만을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작권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복제, 배포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하고자 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것도 디지털 시대가 낳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그 결과 원전과 복제본, 패러디와 표절의 경계선이 약화되기도 한다.

익명에 기초한 글쓰기나 ‘핼’의 확산 현상은 디지털 시대의 명암을 보여준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관심대상이나 전파하고자 하는 내용을 특별한 제한 없이 접속 상태에서 그대로 다운받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그런 점에서 ‘핼’은 최소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각종 매체를 통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티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요인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창작 주체의 역할과 의미가 혼재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수시로 다른 이의 글에 댓글을 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글을 쓰는 주체로 바뀌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 인터넷상에서는 글에 대한 경계나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성은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즉각적으로 제시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낳게 하였다.¹⁸⁾ 문제는 감상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방식이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접촉하는 이들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를 촉발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핼’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핼’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상당 부분 기여하면서도 그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의 가장 큰 논란 요인의 하나인 원전과 복제본에서 찾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발달은 원전과 동일한 형태의 복제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전 가치의 약화를 급격하게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원전과 복제본의 가치가 역전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개

18) 이모티콘의 득세는 합리적 이성보다 감정의 표현이 중요해진 현대사회의 풍경을 반영한다. 프랑스의 미디어 이론가 레지스 드브레는 “좌파는 언어를 선호하고 우파는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여기서 언어란 자신의 이념과 사상·신념에 대한 표현을 지칭한다. 그런 점에서 이모티콘은 분명 언어보다 이미지에 가깝다. 0과 1로 분리된 디지털 감수성은 그 사이의 무한한 점들을 무시한다. 점멸하는 부호로 구성된 이모티콘 역시 수많은 감정을 배제한다. 여기서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에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역설이 가능해진다. 감정 없는 감정 언어, 그것이 바로 이모티콘의 실재이다.”(강유정, 『이모티콘 세대』, 한국경제, 2007. 6. 15).

인 사이트에 수록한 어느 글이 ‘핍’의 형태로 확산된다면 많은 이들이 이 내용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기존의 원전 텍스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방식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전달매체를 사용하느냐, 그 전달매체가 무엇이나에 따라 전파 속도와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누군가가 특정 내용을 수록한 사이트에서 부분을 ‘핍’의 형태를 빌어 유명 사이트에 옮길 경우 사람들은 원전의 출처를 유명 사이트로 착각할 수 있다. 즉 ‘핍’ 행위를 통하여 최초의 글이 갖고 있던 가치는 개인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있을 때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변용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원작이 인터넷상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핍글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다.

핍글은 일반적인 형태의 글쓰기나 일반적인 문학의 전파 양상과는 상당 부분 그 전개과정이 다르다. 우선 핍글은 전달 주체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정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숙성과 내면화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글쓰기나 문학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숙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색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네티즌이 보조적인 매개 역할에 그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조작과 왜곡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달주체의 감정 여과나 생각 정리 등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핍글은 정거장과 같이 단순한 정보의 매개통로에 불과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원전이나 정전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면 핍글은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수에게 동시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 전개 양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상에서 문화 전파의 주도권이 소수의 전문가에서 일반 네티즌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화 전파가 생산적이지 아닌 소모적인 측면으로 치달을 경우, 정보의 빈번한 노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핍글은 정보의 단순 공유 차원을 넘어서 접속자들에게 창조의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과 자극을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핍글의 이면에는 다른 이가 쓴 글을 오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를 다

른 이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공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식이 교차한다. 그동안 네티즌들은 정보나 문화의 생성 및 전파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자신들이 경계인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해야만 했다. 하지만 펄글의 등장과 함께 정보나 문화 소통과정에서 발생하던 일방적인 관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역전이 갖는 사회적 의의는 창작층의 저변 확대와 함께 소통 구조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이것 뿐 아니라 펄글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화를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튼실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펄의 가장 큰 문제는 표절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전파하는 속성상 펄은 표절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표절과 패러디의 경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펄글은 표절에 가깝다. 원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이들의 저작권 관련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사회적인 통념에 배치된다. 원전이나 정전과 달리 펄글은 단순한 저작권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지적 양심의 문제와도 상충되는 요소가 있다. 이에 반하여 패러디는 생산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점차 새로운 문화 흐름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원전이나 정전이 갖고 있던 복합적인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생성방식, 전개방식, 대응방식, 그리고 문화 확산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의미 충돌을 유발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각각 문화의 태도와 전개양상이 다른 상태에서 전개되는 이와 같은 문화 충돌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충돌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공존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결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펄글이나 댓글문화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완충 지대 내지 접점지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기존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속한 속도 논리 속에서 양적 팽창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속도와 경쟁논리는 각종 포털사이트부터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 온라인 교육시장에 이르기까지 오프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확장되는 실정이다. 철저하게 속도와 경쟁 논리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해당 분야의 소수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원전이나 정전은 관심 밖에 위치할 뿐이다. 또한 디지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점에서부터 오프라인과 같은 유지 및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전을 활용한 온라인 시장의 성공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은 네티즌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맞춤형 주문과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틈새시장 개척과 함께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네트워크망과 연계하여 다양성 모색 가능과 함께 관점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다.

상상력과 창조의 고유영역으로 남겨져 있던 글쓰기 또한 펴글이나 댓글의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점차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장르 해체만이 아니라 실험적인 형태의 글쓰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 현상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글쓰는 목적이나 효용도에 맞게 글쓰기 방식과 전개형태가 달라짐으로써 원작자의 의도가 살아나고 글을 읽는 독자들 또한 감동과 충격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기존의 원전이나 정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현상이다.

인터넷상의 글들은 쓰는 이들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실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루는 영역과 표현하는 방식 또한 파격적인 형태를 취한다. 정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인터넷 글쓰기가 기존의 글쓰기에서 강조해왔던 형식미학의 파괴를 통하여 의식을 환기하는 일이 가능하다. 둘째, 인터넷 글쓰기는 글쓰는 과정에서 자기 검열이 상당 부분 배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운 표현 욕구를 대변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글쓰기는 쓰는 이의 인식변화와 대응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다. 넷째, 인터넷 글쓰기는 소재의 다양한 활용과 함께 실시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전개가 가능하다. 다섯째,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의식변화와 맞물려 현실감각의 반영이 가능하고, 실시간 업그레이드가 가능함으로써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인터넷 글쓰기는 그동안 원전이나 정전의 권위 아래 일반인들이 근접할 수 없었던 절대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런 점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글쓰기는 평소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의 참여 기회 확대와 글쓰기 인구의 저변 확대를 가져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정전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다른 형태로 텍스트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오늘날 원전과 정전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이유는 텍스트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디지털시대에는 원전 텍스트 자체가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현저하게 변화를 거듭하는 추세이다.

텍스트의 변화 문제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논의가 가능하다. 형식적인 측면의 변화는 구술이나 기록문학과 달리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음악 등을 내재한 형태의 텍스트 등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체와 결합한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미디어가 가세함으로써 디지털을 매개로 한 형식의 실험성은 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전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글쓰기 방식의 변화이다. 기존의 기록문학과 달리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단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네티즌들이 문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긴 문장보다 단문 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체의 변화로도 이어진다. 기존의 문장과 달리 인터넷의 문장들은 직설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성을 주로 하는 글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둘째, 글쓰기 수용 주체들의 변화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수용 주체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글의 수동적인 수용자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건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소극적인 수용자에 머물러있던 수용주체들은 작성자와 쌍방향의 소통구조를 취함으로써 적극적인 관계형성을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작성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글의 전개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는 영화나 드라마 게시판에 올리는 시청자의 글이 극 전개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셋째, 유통경로의 변화이다. 개인이 전달의 주된 매체역할을 수행하던 구술문학 시대나 한정된 출판경로를 통해 유통이 이루어지던 기록문학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 전방위적인 전파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유통통로의 변혁은 문학 전체의 전개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출판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출판자가 원고를 평가하고 출판여부를 판단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창작자 스스로가 출판의 주체로 변신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블로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연재한 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출판 제의를 받아 책으로 출간되기도 한다.¹⁹⁾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대중의 호응여부, 즉 상업성이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은 실행 불가능보다는 가능성에 그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넷째, 의미의 약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기존과 달리 오늘날에는 책을 내거나 작품을 발표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미 글쓰기가 일상화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을 서핑하고, 댓글을 달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 간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중매체나 광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보들을 체득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는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에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던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소재들이 사회 문제화되기도 한다. 특히 패러디 양상이 우리 시대의 유행과 문화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 김형곤의 <12분만에 똑딱!-혼자먹기 아까운 밥상>(영진출판, 2006), 케이킴의 『케이킴의 깔끔요리-브런치부터 디너까지』(수학사, 2007)는 자신이 취미로 만든 요리를 인터넷에 연재하다가 책으로 출간한 경우이다.

다섯째, 관심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보를 접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현대인은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노출된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보들의 노출을 통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준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정보의 양적 팽창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보의 양적 팽창은 불특정 정보들을 자신이 원하는 가치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정보의 범람 현상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보들은 처음 생성되었던 본연의 가치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그 의미 전개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정보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한정적인 형태를 취하였다면 오늘날의 정보들은 그 의미를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두드러진 사회 현상은 신조어의 출현이다. 기존에는 없던 물건이나 신개념들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적합한 신조어의 등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우와 다른 것은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처음에는 개인의 우연한 시도에서 시작되지만 대개의 경우 사회집단의 동조를 거치면서 사회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현대인들이 개인으로서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공인이나 방송매체 등에서 유행어가 형성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올린 글들이 사회의 대표성을 띠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는 예전과 달리 정전이 그 대표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다. 각각의 개성이 강한 요소들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각종 대중매체나 인터넷이 이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충분한 사유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던 시대에 대한 환상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정전이 갖는 상징성과 대표성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전들은 인터넷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새롭게 급부상하는 정전들에 의해 그 위치를 위협당하고 있다. 이는 무수히 많은 정전들이 우리 시대에 생성되면서 사라지는 원인기도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

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전이 우리 시대와 삶,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생존의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며, 우리들이 살아야 할 가치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정전은 여전히 시대와 문화를 읽어내는 아이콘으로서의 그 의미를 지니며, 사회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유정, 「이모티콘 세대」, 한국경제, 2007. 6. 15.
- 고규진, 「다문화시대의 문학 정전」, 『독일언어문학』 제 23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04.
- 김중신, 「문학교육에서 정전 형성 요건에 관한 시론」, 『문학교육학』 제 25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 라영균, 「정전과 문학교육」, 『독어교육』 제 26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3.
- 박인기, 「문학교육과 문학 정전의 새로운 관계 맺기」, 『문학교육학』 제 25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 변희원, 「‘엄지소설’의 반란」, 조선일보, 2008. 1. 23.
- 송 무, 「문학교육의 ‘정전’ 논의」, 『문학교육학』 제 1집,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 신성환, 「디지털 복제시대의 새로운 예술미학」, 『한국언어문화』 제 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 우한용, 「문학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문학교육학』 제 2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 유성호, 「문학교육과 정전 구성」, 『문학교육학』 제 25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 이승훈, 『이상 문학 전집 1 - 시』, 문학사상사, 1989.
- 전정구, 『소월 김정식 전집』, 한국문화사, 1993.
- _____, 『김정식 작품 연구』, 소명출판, 2007.
- 최유찬, 「토지의 다매체 수용과 문화지형학 ; <토지>판본 비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Vol.21, 현대문학연구학회, 2003.
- 최지현, 「문학교육에서 정전(正典)과 학습자의 정서체험이 갖는 위계적 구조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제 5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 J. Guillory, 박찬부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1994.

A study on the Canon's value and meaning in a Digital time

Jang, Chang-young

In this paper, I researched that the aspect of canon and the other idea in Digital. It must have the literary textuality, and it examined with the internet situation. The concept of canon changes according to the times, incoming Digital. This time is no more important of a concept of original text and canon.

We were confronted with a difficult question,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The new technology of commuter and internet was disseminated throughout world. These works are all included in the genre of writing and art. and then it is revolution in idea and reaction type.

Original text and canon is closed, while that of internet is open. A netizen try to get out of the boundary original text and canon. They needs no more useful and practical value than the value of information. Because of a netizen use often the type of 'pum' in internet. and they make full use of it, wanted to the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with the other people. As a result, original text or canon concept and post is processing a radical change.

But in spite of this radical change, canon is more valuable and more important in this time. The canon is full of suggestions. Our greatest

concern is how to reaction over the present revolution in Digital.

keywords : canon, original text, pum, share information.

이 논문은 2009년 7월 29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